

1.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가톨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몇 사람의 개혁자를 손꼽자면, 마르틴 루터, 홀드리히 츠빙글리, 존 칼빈 등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만에 의한 칭의”는 개혁교회 개혁자들이 루터와 공유하는 종교개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루터와 그의 후예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 물음에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리와 칼빈 등 개혁교회 개혁자들은 단순히 “누가 나를 구원할까?”라고 질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라고 답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형식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된 동기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죄와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에서 종교개혁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것과 달리, 츠빙글리나 칼빈의 개혁은 성경연구, 성경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경과 교회전통, 교리결정, 교회의 가르침 등을 동등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 등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여겼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정경(canon)되게 한 것은 교회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츠빙글리와 칼빈 등 개혁자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 것은 교회와 교회의 신학자들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오직 성경만”을 주장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과 삶 전체를 개혁하고, 이 성경의 토대 위에 교회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법규를 근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종교개혁의 ‘형식원리’라고 일컬어지는 개혁교회의 ‘성경원리’이며, 개혁교회의 모든 신학들은 이 ‘성경원리’를 바탕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개혁교회 개혁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a*),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 “오직 은혜로만”(*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만”(*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us Deo gloria*)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삶의 원칙이 바로 장로교의 “예정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정신앙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업적을 배제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엡 1:4-5),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신앙고백과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혁교회는 성경적 신앙, 기독교의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내용과 형식을 되찾아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개혁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세계 도처에서, 특히 스위스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에서 발달하였고, 19세기 말엽부터는 한국 안에서도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 개혁교회신앙 전통은 장로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교인들 가운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혼동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한 마디로 말하면, 장로교회는 분명 개혁교회이지만, 개혁교회는 반드시 장로교회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개혁교회 그룹들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개혁교회’(Reformed)로서 스위스 교회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독일 남부지역과 헝가리, 네덜란드 등 유럽 대륙으로 확산된 교회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Presbyterian)인데, 주로 앵글로 색슨 세계에 뿌리를 내린 개혁교회들을 일컫는 명칭이며, 특히 영국 성공회(국가교회)의 감독체제에 대응하여 장로교 체제를 강조한 교회를 말합니다. 셋째는 ‘회중교회’(Congregational)로서 영국의 국가교회요 감독교회인 성공회와의 갈등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회중교회는 개교회의 자율성과 권위를 강조하며, 예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신도들의 자율성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넷째는 ‘복음교회’(Evangelical)로서 19세기의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경험을 강조합니다. 회중교회와 복음교회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에 대하여 유보적이거나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네 교회들은 모두 츠빙글리과 칼빈, 존 녹스, 하인리히 불링거, 마틴 부처 등 16세기 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 유산을 물려받아, 말 그대로 ‘한 지붕 네 가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혁교회는 일차적으로 교회행정 또는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의 신앙적, 신학적 전통을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장로교회는 신앙,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면서, 교회 정치제는 장로제를 채택한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처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새롭게 신앙을 고백해왔습니다. 가장 초기에 이 문서들은 취리히(1523), 베른(1528)에서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잘 알려진 중요한 신앙고백서들이 연이어 나왔는데,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1530), 「바젤 신앙고백서」(1534), 「제네바 신앙고백서」(1536)와 「제네바 신앙문답서」(1545),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1563), 「제2 헬베틱 신앙고백서」(1566)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교회는, 루터와 멜랑히톤 같은 걸출한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같은 지리적 조건 하에서 8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이 기록된 루터교회의 신앙고백서들과 달리, 처음 150년 동안 매우 다양한 시기와 장소에서 주목할 만한 신앙고백서들을 적어도 50개 이상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신앙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교회가 자신을 각자의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적 다양성이 개혁교회의 신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실로 어려운 일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모든 신학은 앞서 언급한 저 ‘성경원리’를 바탕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그 모든 고백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교리적-신학적 강조점들을 공유하며, 앞에서 확인한 종교개혁의 다섯 개의 표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표어들은 각각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신학적 강조점들과 대조되는 종교개혁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줍니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교회의 교리적-신학적 강조점	로마 가톨릭의 교리적-신학적 강조점
오직 성경만	성경과 전통
오직 믿음만	믿음과 행위
오직 은혜만	은혜와 공로, 업적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마리아와 성인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 성인들, 교회의 성직자

첫 번째 표어는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권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는 ‘구원의 토대를 다루고, 마지막 표어는 ‘경배와 예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3. “오직 성경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성경만을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로 간주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점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견해와 비교할 때 명백해 집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교회의 교리전통, 교회의 결정 등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합니다. 예컨대, 성경에서 발견되거나 추론되는 진리,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왔지만, 성경에 없거나 성경에서 추론될 수 없는 진리, 하나님께서 사도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거나 최근에 계시하거나 영감을 주신 진리 등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중세 후기의 핵심적 쟁점은, 교회가 성경에서 발견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지만, 전해진 전승들 가운데서 그 권위와 사도적 진정성에서 정경(canon)과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념들을 회중에게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그럴 수 있다고 했고, 마르틴 루터와 훌드리히 츠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 하인리히 불링거 같은 개혁자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계시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의 구호는 성경 이외에 계시의 다른 원천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종교개혁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 “오직 성경만”의 원리를 일관되게 관철시킨 것은 개혁교회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루터교회의 「일치신조」(1577)에서 자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같은 대구(對句)는 루터 이후 루터교회가 다시 위의 도표에서 확인한 로마 가톨릭의 “숙명적인 이원론”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권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상수였고, 그들의 신앙고백과 교리는 언제나 변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점에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그가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일컫은 그의 ‘성경해석원리’를 통해서 해명합니다. 예컨대, 바울 사도가 1차 독자인 로마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간격이 있고, 공간적으로도 엄청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적증거는 바울을 감동시키고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1차 독자인 로마의 교인들을 감동시키신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1차 독자들인 로마교인들 못지않게 똑같이 감동시켜서 동일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딤후3:16-17

참조). 이 성령의 내적증거를 통해 성경은 교회의 다른 문서들과 구별되고, 교회 안에서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 4. “오직 믿음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종교개혁의 주장은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한 루터의 고통스러운 분투의 결과였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오직 믿음 만에 의한 칭의”는 로마 가톨릭에 맞서는 새로운 신앙운동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된 인간에게 베풀어주시고, 인간은 단지 믿음으로만 그 의를 받아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니, 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이 때 깨달은 이 놀라운 신학적 원리를 계속 발전시켰고, 이는 루터의 신학 사상의 근간이 된 것은 물론, 종교개혁 신학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만에 의한 칭의”는 교회사 속에서 두 가지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주장을 가장 심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죄된 인간에게 대가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비록 그것이 믿음을 통한 우리의 응답을 요청하지만 결코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거나 혹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보다 적절하게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서조차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만”의 주장이 모든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흔히 신앙인들 가운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주일 하루만의 주님이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모든 날들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세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고후2:15),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갈2:16, 롬3:28,4:5)고 주장한 바울도 올바른 믿음은 결코 사랑의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갈5:6, 고전13:2).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약2:26). 이것은 야고보에 의해서 먼저 파악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견해를 철저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두 문장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은혜를 입은 신앙인의 상태는 열매에서 나타나야 한다(롬6:22, 7:4, 갈5:22, 빌1:11, 마3:8).

#### 5. “오직 은혜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자신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도하고 그것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구원의 전체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 물음은 이미 5세기 펠라기우스와 어거

스틴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에서 첨예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고대 교회는 소위 ‘신인협력설’을 주장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축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견해를 교회의 정통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단순히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적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며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거저 과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공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1장6절을 주석하며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칼빈에 의하면 이 말은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자랑할 점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특별히 로마서에서 강조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가리켜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롬 4:16). 이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사이에 화평을 수립해줍니다(롬5:1이하). 또한 이 은혜는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참된 자유와 영속하는 해방을 가져다줍니다(롬5:20이하, 6:14).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줍니다(롬12:6 참고).

구원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빌1:3). 만일 인간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으며 그것을 진행하고 완성시켜야 한다면, 바울의 찬미는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분투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위대한 날에 가장 완전하게 완성될 사역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미를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은혜의 교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신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 6. “오직 그리스도만”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 됨을 강조합니다. 이점은 개혁자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매우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체적으로 또 그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행 4:12). 그러므로 그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데서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은 ‘그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친다(고전1:30). 우리가 성령의 다른 은사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가 기름부음을 받으신 데서 발견될 것이다.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권에 있으며, 순결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잉태에 있다. 온유함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탄생에서 나타난다. 그는 탄생하심으로써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히2:17), 우리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셨다(참조, 히5:2).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속이라면 그것은 그의 수난에 있으며, 무죄방면이라면 그것은 그가 정죄받으신 데 있으며, 저주를 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 있다(갈3:13). 배상을 치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희생에 있으며, 정결이라면 그것은 그의 피에 있다. 화해라면 그것은 그의 지옥 강하에 있으며, 육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있다. 새로운 생명이라면 그것은 그의 부활에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것도 그의 부활에 있다. 천국

을 상속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승천에 있으며,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풍부한 축복이라면 그것들은 그의 나라에 있다. 안심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받으신 심판권에 있다 (*Inst. II .xvi.19*).

#### 7.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20:2-3)는 십계명의 제1계명은 개혁교회 신앙의 토대를 이룹니다. 개혁신앙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죄에 빠진 상태에 머물러 있기에, 스스로 구원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개혁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이 신앙적 관계에서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분투했습니다. 예컨대, 루터파는 인간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지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관념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개혁교회 개혁자들은 칭의를 성취하는 이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개혁교회의 개혁자들은 신앙적 관계의 이 우선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하나님께만 영광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전부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칼빈의 신학적 사고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칼빈은 고린도전서 15장10절을 주석하며 이점을 분명히 해명합니다. 바울은 정말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하였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최소한 17권을 그가 저술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정말 죽을 뻔 했던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온 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부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 말은 적어도 바울에게는 안 통하는 말입니다. 정말 바울의 삶은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삶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칼빈은 우리에게 떠올려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저 관계를 주장합니다(*Inst. II .iii.12*). 이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개혁파 신학윤리의 핵심입니다.

#### 8. 하나님 중심주의

개혁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특정한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의 시대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었고, 또한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신앙고백 문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교리

적-신학적 강조점들을 다섯 개의 표어들로 정리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장로교의 신앙고백의 핵심을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개혁교회 전통의 가장 기본적이며 포괄적인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 사상과 삶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항하여 원죄를 부인한 펠라기우스주의와 이와 유사한 신념을 가진 아르미니우스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개혁파 신자들은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속에서 능동적 주도권을 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부류의 복음주의 신앙 유형들과는 대조적으로, 개혁파 신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회심, 나의 믿음, 나의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주권적 의지가 나의 믿음과 구원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결단 양쪽 모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앙은 이런 상관관계의 둘째 부분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앞부분, 곧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앞선 것'(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관심은 칼빈의 신학사상에서 하나님의 독자성, 주권, 자유에 대한 특징적인 강조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개혁교회에서는 믿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성령의 역사를 더 강조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개혁교회 신앙은 항상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시도나,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시도 혹은 인간의 신격화, 그리고 인간의 공적(그것이 행위이든 기도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에 의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경계해왔습니다. 인간, 인간의 전통, 역사, 경험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선적인 강조를 두어 왔던 이러한 하나님의 주격성에 대한 강조 배후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죄 아래 있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상실한 존재라는 인간관이 그 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밝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나와 나의 구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주권적 의지는 우주의 가장 멀리까지도 미치며 시간과 영원을 포괄하여 작용합니다. 이런 광활한 범위와 장대한 시각은 개혁교회적 전망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보존과 섭리적 통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속에서 나타나는 권능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계19:16, 17:14), 그의 나라는 끝이 없(눅1:33). 그는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계11:15)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초점이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에 대해 요약하기를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성자의 손으로 우리를 통치, 양육, 유지하여, 우리를 돌보고 도우신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상 ‘주’로 부르는데, 이것은 성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통치권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두셨기 때문이다”(Inst. II.xv.5).

하나님 중심적이란 곧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동시에 성령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개혁교회 신학이 하나님 중심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철저히 삼위일체적 특징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 9. 성령과 성경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보증합니다. 정경은 교회에 의해 확립되었고 교회에 맡겨졌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에 의해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보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보증합니까? 칼빈은 그 대답을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 판단, 또는 추측이 아니라 더 높은 근원에서, 즉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아무 이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신이다. 곧 이것은 최고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지식이며 실로 이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론에서보다 더 안심하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늘나라의 계시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선민에게만, 곧 전체 인류 가운데서 그가 구별해 내신 자들에게만 이 유일한 특권을 주신다(Inst. I .vii.4-5).

이 구절에서 표현된 주장은 단순합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에게, 인간은 신적인 일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추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은 이성에 의해서 확립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한 진리이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규칙”과 “모든 진리의 척도”가 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몸소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Inst. I .vii.4). 칼빈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임을 나타내는 계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살아 있는 생생한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Inst. I .vii.1). 바로 살아 계신 이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참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Inst. I .xi.1).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Inst. I .vii.5).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성경의 권위와 확실성은 이른바 후대의 ‘축자영감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의 문자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적 증거와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자기 증거의 계시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증거를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근거시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Inst. I .vii.4). 왜냐하면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 위에 세워질 때에만, 비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식을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되기”(Inst. I .viii.13)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경의 저자와 독자를 공통의 목표에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데, 칼빈은 우리가 성경을 교회의 다른 문서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내적 증거와 조명” 때문이라고 「프랑스 신앙고백서」제4조에서 명백하게 진술합니다.

이와 같이 개혁자들은 새롭게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solus Christus)을 최고의 권위로 간주하고, 교회를 위한 그의 말씀과 뜻은 교회의 삶을 위해 일차적 권위를 갖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선언된다고 보았습니다. 개혁자들에게 다른 모든 인간적 권위들은, 그것이 신조이든, 교회의 공의회들이든, 또는 교회의 다른 가르침들이든 간에, 교회에서 단지 보조적이고 파생



적인 권위를 지닐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일 어느 누가 자신을 개혁파 신자라고 간주한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의 밀접한 상관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후3장6-8절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던 칼빈을 따라 장로교 신앙고백서들은 자주 말씀과 성령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상관성에 대한 확신은 '성경원리'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지고, 성경은 단지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호소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며 죽은 정통주의를 생산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면, 언제나 터무니없는 새로운 교리들이 양산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에 부합되지 않는 일방적인 경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인용되는 문장은 『기독교강요』 제1권 9장3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다라 그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Inst. I .ix.3).

칼빈의 이 진술은 원래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열광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자주 말씀과 성령의 상관성을 놓치는 자들이 나타나 목회현장을 어지럽히는 현실을 볼 때 그의 이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0. 예정론

칼빈의 '앞선 것'의 강조가 신학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성경적-신학적 기초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목회적 차원의 관심에서 이 교리에 도달하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가 성서를 연구하면서 얻은 해답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선택 또는 결정하셨다(롬 8:28-30)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무수한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된다는 것같이 불합리한 일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놀라게 하는 그 흑암 속에서 이 교리의 유용성뿐 아니라, 그 심히 향기로운 열매까지도 알려진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Inst. III.xxi.1)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Inst. III.xxi.5).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로서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더 이상 깨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칼빈은 신자들의 구원에 대해 이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머리에 접붙임을 받아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다”(Inst.Ⅲ.xxi.7).

칼빈이 예정을 말할 때,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예정론을 통하여 말하고자 한 것은, 정확히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는 죄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호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한 반(semi)-펠라기우스적인 인간관과 구원관에 맞서는 어거스틴적 바울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강조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예정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놓고, 그로써 기독교 자체를 왜곡시킨 중세 후기 로마 가톨릭교회의 모든 기획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